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잇단 탈선 ‘물의’

공금 횡령·리베이트 수수에 절도·음주운전·성추행까지

나주시민들 “순박한 도시 혼탁해져...공직기강 강화해야”

공금 횡령에 리베이트 수수, 절도, 음주운전, 성추행 미수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최근 벌인 범행들이다. 이들은 선망의 직장에 다니는 준공무원들로,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가속사동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쳐온 한전KDN 보안요원 A(28)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간 금요일을 틈타 여자로 분장한 후 마스터키를 이용해 가속사동에 침입, 상습적으로 여자속옷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주말을 보낸 뒤 가속사에 돌아온 여직원들이 옷장의 옷이 자주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보해 CCTV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앞서 나주경찰은 지난해 12월 한전 계열사인 한전KPS 전 노조위원장 B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공공노조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나 2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도·음주운전 등 민생범죄도 잇따랐다. 또 다른 이전기관 직원인 C씨와 D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직원 E씨는 술에 취해 혁신도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은 우리 사회에서 선망의 직장”이라며 “수도권의 매너있고 세련된 문화와 경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순박한 도시인 나주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같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69일만에 또 AI...농장 간 수평전파 우려 ‘비상’

오리 2만5000마리 살처분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69일만에 다시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2월 21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4일 나주시 산포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오리들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1만5000마리와 반경 500m 안에 있는 다른 오리 농가 1만 마리 등 모두 2만5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어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농장 반경 500m~3km에서는 8 농가에서 오리 11만2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10km 이내에서는 29 농가에서 142만

9000마리 닭과 오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는 국내에서 오리 사육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겨울철에 전남에서 확진된 AI 28건 가운데 10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제 검사 중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난 1월 4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역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과 나주의 AI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23건 가운데 8건, 2014년 68건 가운데 20건, 지난해 39건 가운데 10건이었다. 2012~2013년에는 도내 발생 사례가 없었다. 더욱이 소강상태를 보이던 AI가 지난해 21일 해남에서 발생한 뒤 전남에서만 강진, 무안 등을 거쳐 나주로까지 퍼져 확산세도 만만치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해당 농장 이동 제한과 함께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며 “검역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세월호 들어올릴 책킹바지선 15일 오후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책킹바지 2척에서 인양업체 직원들이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소조기에 테스트를 거쳐 다음달 5일 소조기에 기항 여건만 허락한다면 세월호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물살이 약해지는 시기는 오는 21일과 다음달 5일이다”면서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 차관은 또 “기상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일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파고는 1m 이내여야 하고 바람도 10.8m/s 이하로 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양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것”이라며 “세월호 3주

기가 되는 다음달 16일에는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3주기까지 목포신항에 옮길 것”

해수부 차관 간담회서 밝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세월호 3주기인 다음달 16일까지 목포신항에 세월호를 거주할 수 있도록 인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세월호 가족대기실에서 열린 미수습자가

족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현재 해저에서 해야 할 준비는 다 됐다. 세월호를 올릴 책킹 바지 2척이 대기 중이며, 중국에서 출발한 반잠수식 선박은 오는 17일 새벽에 사고해역에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가 되는 다음달 16일에는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은 “인양의 최우선 순위는 미수습자를 찾는 것”이라며 “인양 과정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수부는 인양업체인 상하이 샬비지와 정부와 작업진행을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인양 시기가 나오면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국과수, 이달 헬기탄환 찾기 나선다

광주시 요청에 수용...전일빌딩 후면 탄흔 발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달 중 전일빌딩 건물 내부에 남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군 헬기 탄환’ 발굴작업에 나선다. 올해 초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에 대해 국과수가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탄환으로 유력시된다”는 감정결과에 더해 실제 탄환이 발견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시는 3월 중 국과수가 광주시 금남로 전일빌딩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강원도 원주 국과수 본원을 찾아 “이달 안으로 전일빌딩 10층 내부 천정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계엄군 탄환 발굴에 나서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과수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5·18단체와 협의를 거쳐 건물 내부 천장 ‘텍스’는 건드리지 않고 일부 등기구(형광등)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탄환 찾기 작업에 나선다. 탄환을 발견한 내부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국과수는 올 1월 ‘전일빌딩 총탄흔적 감정보고서’에서 빌딩 10층 내부 ‘구 전일방공 천장 공간(슬래브와 텍스 사이)’에 탄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광주시가 감정을 요청할 경우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전일빌딩은 1980년 5·18당시 공간이 최근까지도 원형 상태로 유지됐다. 그런데 중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요청으로 국과수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헬기 사격탄흔으로 유력시되는 탄흔 150여개가 10층 내부에서 무더기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빛 고민 50대 부부 원룸서 숨진채 발견

광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발견된 유서와 유족 진술 등으로 미뤄 이를 부부가 과도한 빚과 자식에 대한 고민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원룸에서 A(59)씨와 B(여·56)씨 부부가 숨져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 액체가 담긴 그릇과 수면 유도제가 발견됐다.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우리 부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돈을 갖지 못하고 먼저 떠나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의 뒤처리를 맡게 될 분들께도 죄송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2명의 아들을 걱정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부가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서 목포에 거주하다가 지인들에게 빚 때문에 광주의 아들 거처로 옮겨와 살다가 막 내 아들마저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얽이면 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딸 친구 성폭행하고 딸도 성추행...아버지 징역 6년 선고

10대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딸까지 성추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에인간강간·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5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물수집업인 김씨는 지난해 2월28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놀러 온 지적장애 3급인 친구 A(17)양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억대 사기 피해”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연습장 대표 고소

“20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경기 화성의 한 골프연습장 실소유주 A씨를 검찰에 고소. “15일 의정부지법 교양지청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이달 초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2013년 10월 A씨에게 체육 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임차 보증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고, 같은해

12월 체육시설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갚겠다고 한 뒤 다시 2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총장은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로 벗어났는데, 이번엔 그가 골프장 관계자들을 증거 조작 혐의에 이어 사기 혐의로 추고 소하며 반격.”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20167	1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440-12, 103동 9층 906호 [주공아파트] 51.88㎡	아파트	93,000,000	2016.8~12현재가 31,000,000 지미남권리비있음
[아파트]					
2016타경 15080	1	남구 화장동 779-5 410㎡ 동소779-5 51.57㎡ 부속건물 퇴비사21.17㎡ [현황열선로채외] 제외의 창고 등134.1㎡ [제외외건물[일부타지상소채추정]포함]	대	17,698,676	일괄매각, 지분매각, 반채국지분2/1 1전부, 공유자우선 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15356	1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13-2 284㎡ 제외외 창고 등 18.6㎡ 나주시 금천면 당가길 28-12 74.76㎡ 부속건물 창고 20㎡	대	51,703,360	일괄매각, 제외외 건물포함
2016타경 16281	1	남구 화장동 779-5 410㎡ 동소779-5 51.57㎡ 부속건물 퇴비사21.17㎡ [현황열선로채외] 제외의 창고 등134.1㎡ [제외외건물[일부타지상소채추정]포함]	대	17,505,292	일괄매각, 지분매각, 반채국지분2/1 1전부, 공유자우선 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16298	1	남구 화장동 779-5 410㎡ 동소779-5 51.57㎡ 부속건물 퇴비사21.17㎡ [현황열선로채외] 제외의 창고 등134.1㎡ [제외외건물[일부타지상소채추정]포함]	대	16,893,657	일괄매각, 지분매각, 반채국지분2/1 1전부, 공유자우선 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19006	1	영광군 공성면 대성리 15-2 397㎡ 당양군 공성면 공성신성길 282-12 88.29㎡	대	76,703,070	일괄매각, 제외외 건물제외, 수목은 매각포함, 맹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대지/일야/전답]					
2016타경 13039	1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150 2655㎡ [비닐하 우소매각제외]	답	31,8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1,860,000
2016타경 15370	1	북구 분촌동 선13-1 11532㎡ [일출철지분24 9.5/11532전부, 토지취득자격소유의외장성, 군사, 주택임대부대제외]	일야	19,211,50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18768	1	영광군 흥농동 진덕리 702-5 1453㎡ [문묘 소재, 대로3류 [폭25-30m]지축]	전	27,60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7,607,000
2016타경 19259	1	광산구 지산동 88-3 479㎡ [인양수54/296, 임해인38/296지분각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전	6,699,15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동소 88-1 220㎡ [목책1과지분동일] 제외외 창고 등 73㎡ [제외외건물매각제외]	대	10,700,000	물건번호1과비고 동일
	3	동소 178 466㎡ [목책1과지분동일, 농지취득자격증명포함, 맹지]	전	2,896,600	물건번호1과비고 동일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6타경 20389	1	남구 대남대로351, 5층 506호 [할선동, 동 광오피스텔] 22.60㎡	오피스텔	28,000,000	28,000,000
	2	동소 351, 5층 506호 [할선동, 동광오피스텔] 22.60㎡	오피스텔	28,000,000	28,000,000
[기타]					
2016타경 13039	2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127 298㎡	대	40,064,900	일괄매각, 제외외 건물포함, 다만, 매각대상아닌건물
		동소 127 144.06㎡ 부속건물 창고10㎡ 제외외 주택 등 85.9㎡	채	40,064,900	매각대상아닌건물
		동소 127 44㎡	주택		
		동소 128 256㎡	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물건일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매각대금에 상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명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무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 민사합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권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생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권이 없는 경우 최고가매각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권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3. 30.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4. 6.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방 방식의 기밀입찰방에 사전연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의 액을 기재하고 낙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방에 넣어 입찰방방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한다]를 보증금의 자기입찰금 또는 현금 또는 준비금이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공한 문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방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계약금 표시하여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최저의 액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한 계약금 표시를 하지 않은 계약금 표시를 정하고, 계약금 표시를 하지 않은 계약금 표시를 정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최저로 입찰한 사항에 (당해 매각물건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물건일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설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허가 및 자연야, 비효를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기인 기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등록비용과 지상권설정 비용 등 등록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비용수납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국민수익증과발행번호를 기재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물건인건물과 매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영업자등 다른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임차보증금 반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이후 잔여 임대보증금, 현물보증금, 현금보증금 등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신신크에 비하여도, 계약금과 보증금과 있으므로 미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후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 내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입찰한 후 매각물건일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등에 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면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청된 공고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순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는 계승인의 공고나 변경에 비하여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 채무자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된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판결명보통판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물건이 상환되거나, 대법원판정이나 순회판정, 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일정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지도해서 제1차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합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성